

02

나의 꿈을 그리다

- 1 나의 관심사와 진로를 탐색하고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 2 다양한 분야와 연결된 미술의 사례를 찾아 자신의 흥미나 진로와 연관지어 탐색할 수 있다.

진로 탐색하기

진로를 탐색하려면 나의 적성과 흥미를 다방면으로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내가 무엇을 잘하고 좋아하는지, 꼭 이루고 싶은 목표가 무엇인지, 평소 나의 사회관계망 서비스 알고리즘엔 어떤 주제가 보이는지 생각해 보자.









내가 어떤 분야에 관심과 흥미를 느끼는지 아직 알지 못한다면 진로 적성 검사를 하거나 직업 정보 사이트를 방문해 보자. 혹은 박물관이나 전시관 등에서 제공하는 진로 교육을 경험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 나는 어떤 사람일까?
나는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을까? ”

- ☑ 내 사회 관계망 서비스의 주요 피드 내용
- ☑ 나의 버킷 리스트
- ☑ 자랑하고 싶은 나의 능력

95쪽 부록 참조

그려봐 나의 꿈 만다라트

그림 그리기	SNS	춤	빵	귀여운 동물 그리기	추리 소설 읽기	그림 그리기	오래 달리기	유연함
영화 보기		독서		하늘 관찰하기	발표하기			
음악 듣기		동물	매운 음식 먹기	잠			상상하기	
집중을 잘함	계획을 잘 세움	취미	좋아 하는 것	잘하는 것	ENFJ	활발함		
		수학이 싫음	공부	나는?	성격	긍정적		실
실수하지 말자	질문을 많이 함	영어가 좋음	고민	올해 목표	학교 생활	부지런함	칭찬어 약함	
항상 놀고 싶다	동생과 자주 싸움	하루 한 장 그림 그리기	하고 싶은 일 찾기	동물 관련 캠페인 하기	학급 문고 도우미	댄 동아리		
수학 성적		용돈 모으기		동물 관련 캠페인 하기	학급 문고 도우미			
	휴대폰 보는 시간이 너무 길	고등학교 진학	SNS 줄이기	급식을 많이 먹음	수행 평가 열심히 함	고양이 챙기		

▲ 김동하(학생 작품) 나의 미래(종이에 채색/14×10cm)

나의 미래 표현하기

내가 그리는 나의 미래가 적성, 흥미, 가치관과 맞는지 탐색해 보고 다양한 방법으로 내 미래를 표현해 보자.

미래 직업 명함



◀ 박병서(학생 작품)
내 명함-태권도 국가 대표(종이에 채색/13×9cm)

▶ 김건희(학생 작품) 나의 꿈 포스터(디지털 작업 후 출력/25×36cm) 자신의 MBTI, 취미, 좋아하는 것 등을 탐색하여 포스터로 제작하였다.

자기 탐색 포스터



나의 미래 문자도



▶ 윤건우 외 27명(학생 작품) 1학년 6반 미래 문자도(종이에 채색/100×175cm) 각자의 관심사, 특기, 취미 등을 담아 협동 문자도로 제작하였다.

표현활동

나를 소개합니다!

표현 재료

활동지, 노트북, 태블릿 PC, 종이, 채색 도구 등

- 1 자신의 외형이나 성격, 취미, 진로 등을 다양하게 탐색하며 자기 탐색 활동을 한다.
- 2 탐색 활동 결과를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재료를 선정하고 아이디어 스케치를 진행한다.
- 3 그림과 글을 가독성 있게 배치하여 작품을 완성하고 발표하며 친구들에게 자신을 소개한다.

▶ 강보연(학생 작품) 나를 소개합니다(디지털 이미지/64×90cm) 자신의 정보와 성격, 버킷 리스트, 희망하는 진로 등 다방면으로 자신을 탐색한 뒤 디지털 드로잉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다양한 미술 직업으로의 여행

21세기를 흔히 ‘문화의 세기’라고 한다. 문화 예술 분야는 인간의 감성을 깨우고 다양한 분야와 융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어 중요하다. 나는 어떤 문화 예술 능력을 갖추었는지 체크리스트로 파악해 보자. 그리고 내가 가진 문화 예술 능력에 어울리는 미술 직업을 찾아보고 함께 이야기해 보자.



▲ 애니메이션의 각본, 작화, 디테일을 종합적으로 연출하는 능력이 뛰어난 애니메이터 미야자키 하야오

✓ 체크해 보자.

그림 그리는 실력만을 미술 능력이라고 할 수 있을까? 미술과 관련한 다양한 능력을 살펴보고 내가 가진 문화 예술 능력을 탐색해 보자.

- 주제나 상황에 맞는 독창적 아이디어를 떠올린다.
- 수공예 작업을 좋아하며 섬세하게 작업한다.
- 관찰력이 좋아 대상의 미세한 변화를 잘 찾아낸다.
- 상상한 것을 구현하는 데 관심이 많고 재미있어한다.
- 여러 가지 문화에 관심이 많다.
- 그래픽 프로그램을 잘 다루며 습득력이 뛰어나다.
- 나만의 매력을 발산할 수 있다.
- 예쁘게 꾸미는 것을 좋아한다.
-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구체화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 창작물과 저작권에 관심이 많다.

내가 탐색한 능력에 어울리는 미술 직업을 찾아보자.

영상·무대 공연

영화감독, 미술 감독,
무대 미술가,
특수 효과 기술자 등

디자인

시각 디자이너, 제품 디자이너,
의상 디자이너, 광고 디자이너,
웹 디자이너 등

순수 미술

화가, 조각가, 공예가,
행위 예술가, 도예가,
사진작가 등

미술 교육·연구

미술 교사,
고고 미술 사학자,
대학교수, 미술 평론가,
미술 사학자,
저작권 관리자 등

게임·만화·애니메이션

만화가, 게임 일러스트레이터,
캐릭터 디자이너,
애니메이션 기획자

미술 전시

큐레이터(학예사), 도슨트,
미술 경매사, 문화유산 복원가,
미술관 관장 등

이 밖에도 갤러리스트, 건축가,
미술 심리 상담사, 푸드 스타일리스트 등
다양한 미술 직업이 있습니다.

더 넓은 세상, 미래의 미술 직업

미술은 과학 기술이나 인문학, 디지털 등 다양한 분야와 융합하며 가치와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미래 사회에 주목할 만한 미술 직업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의료, 건축, 공학, 환경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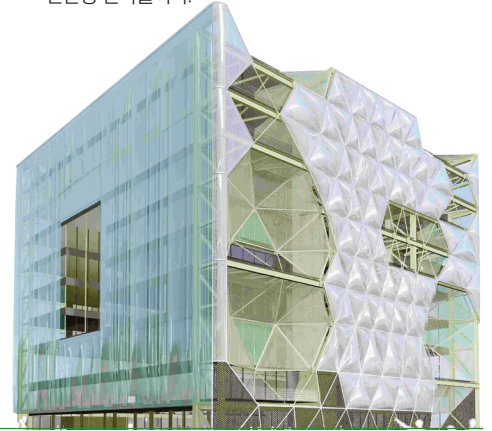
스마트 건설 전문가, 친환경 건축가,
건축 3D 프린팅 기사, 친환경 소재 전문 디자이너,
3D 의료 기기 개발자 등



▼ 3D 프린트 기술로 제작한 의료 기기



▼ 미디어 TIC(에스파냐/2010년) 에틸렌 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ETFE: Ethylene tetrafluoroethylene) 소재 필름을 이용하여 건물 전체의 에너지 중 20%를 생산하는 친환경 건축물이다.



문화, 예술, 인문 분야

문화유산 콘텐츠 전문가, 디지털 큐레이터,
광고 디렉터, 지역 관광 디자이너



▲ 우리는 공기의 바다에 살고 있다(영국/사치갤러리/2019년)
미술관에서 작품을 가상 현실(VR)로 체험하는 모습이다.



▲ 이이남(한국/1969~) 박물관-다시 태어나는 빛(미디어 아트/350×3,500cm, 12분 7초/2020년) 미술관, 박물관에서 감상할 수 있던 문화유산을 광화문 앞 거리에서 생생하게 볼 수 있도록 초대형 LED로 제작한 미디어 아트이다.

문화와 예술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며 발전시키려는 마음도 필요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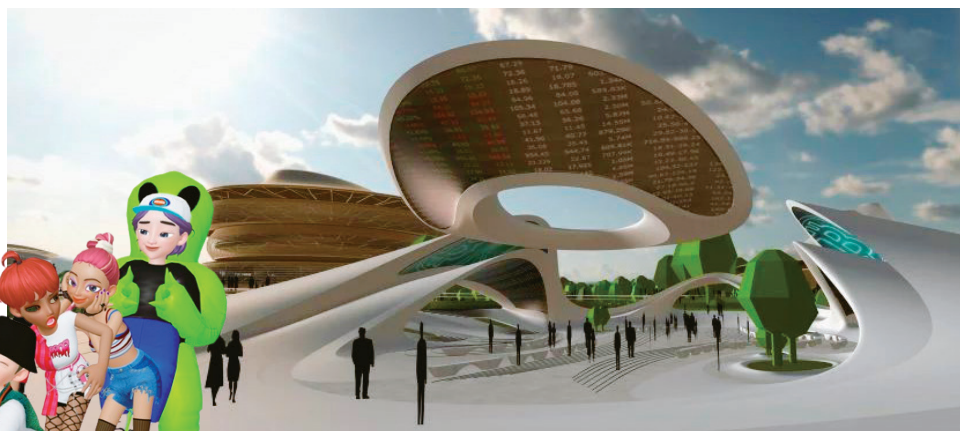
디지털, 메타버스 분야

게임 디자이너, 아바타 디자이너, 저작권 전문가,
메타버스 건축가, NFT 아트 에이전트 등

디지털 기술을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이 필요해!



▶ 메타버스 플랫폼 Z사의 아바타 디자인



▲ 자하 하디드 아키텍츠(Zaha Hadid Architects/영국/1980~) 리버랜드 메타버스(Liberland Metaverse/2022년)



- 나의 관심사와 진로를 탐색하고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가?
- 여러 미술 분야와 자신의 진로 사이의 연관성을 설명할 수 있는가?

그것이 무엇이든
푹 빠져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라.
- 로버트 헨리 -

르네상스형 인간(Renaissance man)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는가? 예술, 학문, 삶의 다방면에서 두각을 드러내는 사람을 일컫는 용어이다. 미래 사회에서는 예술과 삶을 깊게 통찰하고 창의성과 상상력을 발휘해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가치를 창출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삶에 대한 이해와 창의성을 바탕으로 여러 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한 예술가를 알아보자.

인류의 역사를 바꾼 천재, 레오나르도 다 빈치

레오나르도 다 빈치는 과학과 건축, 수학, 물리 그리고 예술을 하나로 융합하며 창의성을 발휘한 대표적인 융합형 인재이다. 보통 레오나르도 다 빈치를 떠올리며 단순히 <모나리자>, <최후의 만찬>과 같은 명작을 그린 화가라고 생각하지만 그는 화가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천문학자, 해부학자, 수학자, 조각가, 음악가, 식물학자, 건축가, 물리학자이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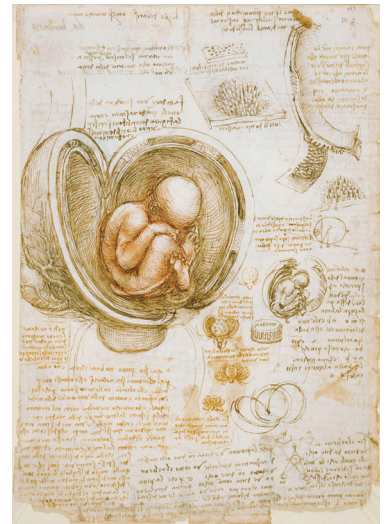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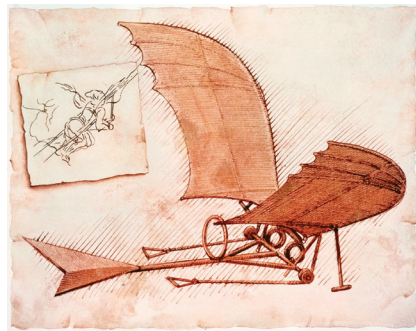


★★★★★

레오나르도 다 빈치
(Leonardo da Vinci)
1452~1519
피렌체 공화국

- 아름다움을 담는 예술가
- 창의적인 발명가
- 공간을 창조하는 건축가
- 세상 만물을 연구한 학자
- 기술을 개발하는 공학자





▲ 레오나르도 다 빈치(Leonardo da Vinci/이탈리아/1452~1519)
(좌) 오르니토퍼(종이에 펜/1490년경) 다 빈치는 새 날개의 구조와 원리를 연구해 비행 기기인 오르니토퍼를 구상하였다. 새의 날개에서 발생하는 압력차를 기기에 적용하고자 한 다 빈치의 탐구력과 창의성을 엿볼 수 있다. (우) 태아(종이에 펜/1510년경) 다 빈치가 1510년 작성한 연구 노트의 일부로 자궁 내 태아의 자세와 위치, 동맥 등 혈관계의 구조를 묘사한 방식이 매우 사실적이다.

예술과 학문의 정신을 묵향에 담다, 김정희

추사 김정희는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화가이자 서예가이면서 동시에 비석에 쓰여진 문자를 연구하는 금석학자이며 성리학자, 실학자로 학문과 예술의 분야를 두루 섭렵한 융합형 인물이다. 김정희는 조선 후기 조선 금석학파를 성립하여 비석에 쓰인 문자를 관독하는 연구를 체계적으로 진행하였으며, 문자와 서법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추사체를 창작하였다. 유배 중에도 서예와 문인화, 시문을 넘나들며 독창적인 업적을 남겼다.



▲ 김정희(조선/1786~1856) 김정희 필 난맹첩 중 일부 (종이에 수묵/1830~1840년대)



★★★★★

김정희
(金正喜)
1786~1856
조선

- 문자를 분석하는 금석학자
- 언어와 문헌을 탐구한 문인
- 서화에 능한 미술가
- 유교와 실학을 연구한 학자
- 새로운 서체를 창조한 서법 연구가



◀ 북한산 신라 진흥왕 순수비(높이 155.1, 폭 71.5, 두께 16.6cm/신라 555년경) 조선 순조 16년(1816)에 김정희는 김경연과 함께 북한산에서 비석을 발견하고 비문을 연구해 진흥왕 순수비의 존재를 밝혀내었다. 진흥왕 순수비의 옆면에는 김정희가 비석을 조사한 내력이 예서체로 새겨져 있다.

→ 다양한 직업을 가진 현대 예술가, 백현진

끊임없이 변화하는 오늘날과 같은 시대에는 진로를 놓고 융통성과 탄력적인 태도를 갖추면서 여러 가능성을 실험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직업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백현진 작가를 만나 우리의 진로와 삶의 태도를 연결하여 생각하는 기회를 가져 보자.

Q1 여러 분야의 직업을 갖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그것의 장단점은요?

호기심이 있는 것을 하다 보니까 직업이 늘었습니다. 단점은 모르겠지만, 장점은 각 직업끼리 서로 확실히 보완된다는 점입니다. 음악가, 미술가로서 작업할 때는 혼자 있는 시간이 깁니다. 하지만 배우 활동을 할 때 사람들을 만나며 일시적으로 소속감을 느낍니다. 여기서 생기는 균형이 여러 직업을 가진 사람만이 맛볼 수 있는 장점인 것 같습니다.

Q2 미술가로서 퍼포먼스를 하실 때, 다른 직업으로 활동한 경험이 도움이 되나요? 미술 외에 다른 작업을 할 때는 어떤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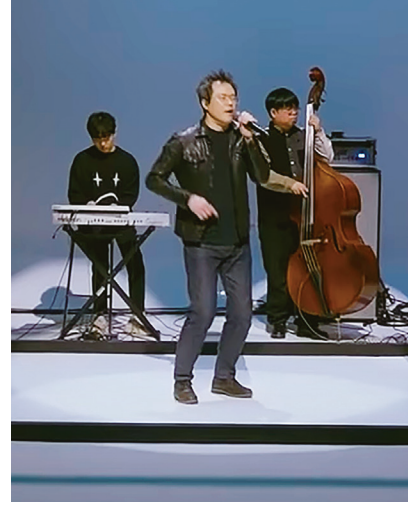
예.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모든 것이 서로 연동되어 하나의 시스템으로 굴러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백현진이라는 시스템이 있고 그 안에서 다 연동되어 보완되는 것이지요.

Q3 작가님의 곡과 그림은 다양한 스타일을 갖고 있습니다. 음악, 미술, 연기에서 특정한 소재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작업을 계속해 내시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어떤 결과물을 내는 데 가장 중요한 동력은 호기심입니다. 하지만 그건 저에게 가장 중요한 낱말이고 다른 이들에게는 다른 것이 원동력일 수 있습니다. 절대적인 것은 없으니까요.



▲ 드라마에 출연한 배우 백현진



▲ 무대에서 노래하는 가수 백현진

Q4 노래하실 때 몸을 움직이는 동작이나 그림을 그릴 때 작품 구상은 구체적으로 미리 준비하는 편이신가요?

1995년부터 공연한 이래로 율동 연습을 해 본 적이 단 1~2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리듬을 타면서 제가 느끼는 만큼 움직이는 편입니다. 그림을 그릴 때는 보이는 것들을 두고 심사숙고하지만, 실제로 작업을 할 때는 직관과 즉흥에 의존합니다. 무엇을 그릴지 명확하게 구상하지 않는 훈련을 했기 때문에 일부러 계획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작업을 시작합니다.

Q5 마지막 질문입니다. 진로에 고민이 많은 학생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경제적 문제 때문에 직업을 빨리 택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소소하고 검소하게 생활하더라도 직업은 3년에서 5년 정도 길게 고민했으면 합니다. 요즘 세상에서 '내가 평생 무엇을 할까?'라는 고민은 내려놓고 다양하게 경험하면서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를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어떤 한 직업이 이끌어 줄 것으로 기대하지 말고 여러 가지 경험을 해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 백현진(한국/1972~) 농담과 통곡의 벽지(린넨에 유채와 에나멜 스프레이/186×465cm/2019~2020년)